

후반에 '손' 쓴다...마수걸이 승리 쏜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9일 오후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은 20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클린스만호, 오늘 밤 8시 엘살바도르 평가전

손흥민 "이번 경기 의미 얼마나 큰지 알아"

클린스만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48계단 아래에 있는 약체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마수걸이 승리에 도전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6월 A매치 2연전의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지난 3월 출범한 클린스만호는 앞서 치른 3경기에서 무승에 그쳐 이번 엘살바도르전에서 승리가 간절하다.

첫 경기인 3월 콜롬비아전에서 2-2로

비기고, 이어진 우루과이전에서는 1-2로 진 클린스만호는 지난 16일 부산에서 치른 페루전에서도 0-1로 예상 밖 패배를 당했다.

더는 마수걸이 승리를 미룰 수 없는 처지다.

한국이 A매치에서 이긴 건 지난해 12월 3일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으로, 벌써 6개월도 더 된 일이다.

엘살바도르전에서도 원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해 무승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절대 작지 않은 부담이 될 터다.

올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11월 3차례 A매치 기간에 2경기씩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데, 이때는 내년 1월 치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아컵에 대비한 '우승 청사진'을 그리는 데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승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클린스만 감독은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페루전에 결장한 손흥민(토트넘)을 출격시키는 등 정예로 엘살바도르를 상대할 전망이다.

다만 손흥민은 선발이 아닌 교체로 투입돼 후반전 득점 사냥에 나선다.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90

분을 뛰기에는 무리"라면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지만, 투입 시점은 후반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루전을 앞두고는 따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던 손흥민은 페루전 다음날인 17일과 18일에는 동료들과 함께 '풀타임'으로 잇달아 훈련을 소화했다.

한편, 손흥민은 평가전을 하루 앞둔 1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감독님이 첫 승리를 아직 못 거뒀는데 (이번 경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선수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밝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힘써 말했다. /연합뉴스

'기록보다 팀'...1498타점 최형우, 올시즌 1호 번트 안타



지난 18일 열린 NC와 KIA의 경기. KIA 4번타자 최형우가 8회말에 선두타자로 나와 기습번트 안타를 만들어 1루에 안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인미답 1천500타점 한화戰서 '門이 열린다'

KIA 베테랑 해결사 최형우가 KBO리그 최초로 1천500타점 고지 등정을 예약했다.

최형우는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경기 7회말 2사 3루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며 1타점을 추가, 1천498타점을 기록하며 1천500타점 고지 등정을 예약했다.

18일 NC전에서는 6타석 5타수 1안타 1볼넷으로 대기록을 잠시 미뤘지만 팀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다.

5-7로 KIA가 역전을 허용한 8회, 최형우에게 이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던 타석에서 상대 시프트를 뚫고 3루 쪽으로 기습적으로 번트를 뒀다.

올 시즌 1호 번트 안타를 성공시킨 최형우의 투혼에도 KIA는 8회 점수를 내지 못했고, 9회 이후성의 2타점 2루타로 동점을 만든 뒤 연장 12회 대결 끝에 7대7로 비겼다.

최형우는 9회 2사 2루에서 삼진점으로 이 부문 1위인 레전드 이승엽 두산 베이스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8일 NC전에서는 6타석 5타수 1안타 1볼넷으로 대기록을 잠시 미뤘지만 팀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다.

타점 1개를 추가하면 단독 1위에 오르고, 2개를 얻으면 전인미답의 대기록 1천500타점을 채운다.

최형우는 최정(SSG)에 이은 역대 두 번째 16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에도 2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희중기자



신유빈 /Xinhua=연합뉴스

에이스 신유빈 단·복식 2관왕

신유빈(대한항공)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캔터 대라고스(총상금 7만5천 달러)에서 여자 단·복식 2관왕에 올랐다.

신유빈(20위)은 18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대라고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류웨이산-판치 조(56위)를 물리치고 우승한 터라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지희와 함께 한국 선수로는 36년 만에 여자 복식 은메달을 획득한 신유빈은 곧이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완벽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빛고을야구의산실' 무등경기장, 8년 만에 재개장



광주시, 489억 투입...스포츠테마공원 조성

광주지역 야구의 산실 '무등경기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8년 만에 재개장했다.

광주시는 1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광주시의원, 초등부 야구선수들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경기장 재개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재개장 기념식은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경과 보고에 이어, 광주지역 7개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를 초청한 가운데 이벤트 경기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과 대표선수, 교육감 등 내빈들의 동시 시구로 시작된 이벤트 경기는 A팀(대성초·서림초·서석초·화정초)과 B팀(송정동초·수창초·학강초)으로 나뉘어 5이닝으로 치러졌다.

광주시는 기능 축소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무등경기장을 2016년부터 총사업비 489억원(시비 352억원·국비 137억원)을 투입, 야구장과 공원이 어우러진 스포츠 테마공간으로 조성했다.

무등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본부석을 교체하고 인공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하주차장(지하 2층) 1천37면을 조성했다. 또 야마추어 야구장과 클라이밍장, 산책로, 조깅트랙,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췄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을 울고 웃게 했던 지역 야구의 역사적 장소가 야마추어 야구인, 미래 꿈나무인 유소년 야구선수, 그리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2023 현대 양궁월드컵 3차 대회에서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 강채영, 임시현(왼쪽부터)이 시상식에서 태극마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세계양궁연맹제공)

안산, 양궁월드컵 단체전 '金'

태극공사, 남녀 단체전 2개 대회 연속 동반 우승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2023 현대 양궁월드컵 3차 대회에서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산은 18일(현지시간) 폴로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체대)과 팀을 이뤄 출전한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세트스코어 6대0으로 완파하고 이번 세계최강을 입증했다.

예선 총점 합계 1위(2천37점)로 토너먼트 라운드에 나선 한국 여자대표팀은 폴란드, 일본, 미국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으로 팀을 이룬 남자대표팀도 결승에서 대만을 6대0으로 제압하며 2회 연속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차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남

녀단체전 동반 우승하며 두 대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는 대표팀 막내 임시현이 결승전에 올라 멕시코의 루이즈 안젤라를 꺾고 2개 대회 연속 2관왕을 차지했다.

임시현은 혼성전에서 김제덕과 짝을 이뤄 결승까지 순항했지만, 결승에서 미국의 제니퍼, 브레이디 엘리슨 조를 상대로 숏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제덕과 이우석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서도 선전을 펼친 태극공사들은 다음달 31일부터 8월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 5개를 쓸어들인 한국 대표팀은 베를린에서 2회 연속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 /박희중기자

'엄지 골절' 김선빈, 4주 재활 진단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선빈(34)이 골절 진단을 받았다.

KIA 구단은 19일 "김선빈이 검진 결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4주간 안정 및 재활 치료를 실시하고, 오늘로부터 2주 뒤 재검을 통해

증상 호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빈은 지난 17일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4회 수비 도중 강한 타구를 잡으려다 오른손 엄지 부근을 강타당했다.

즉시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은 김선

빈은 골절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날 서울에서 받은 교차 진료에서도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KIA는 김선빈이 1군에서 말소된 지난 18일 광주 NC전에서 내야수 김규성에게 선발 2루수 자리를 맡겼다. /박희중기자